

‘直指’ 이제는 한글로 본다

〈직지〉



대강백 무비 스님, 원문 완역에 명쾌한 강설 더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가 한글로 완역됐다.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사진)은 최근 〈직지〉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 쓴 〈직지 강설〉 상·하권을 펴냈다.

〈직지(直指)〉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줄여서 〈직지심경(直指心經)〉 또는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고 부른다. 〈직지〉에는 과거 7불의 가르침과 인도의 28조사의 가르침, 중국의 100 선사들의 가르침이 모여져 145가(家)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부처님 말씀[法]과 (육조단경)처럼 그에 버금가는 조사(祖師) 스님들의 어록에만 허락한 ‘경(經)’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달고 있는 책은 고려 말 백운경한 스님이 불조의 가르침을 거러 뽑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직지〉를 인류 최고의 금속활자본 정도로만 기억한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 조상들이 왜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만들어 〈직지〉를 널리 퍼뜨렸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무비 스님은 “〈직지〉는 팔만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의 요점만을 집약한 만고의 보물임에도 인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만이 조명돼 왔다. 이에 〈직지〉가 문화유산의 가치보다도 천만 배 이상 가치 있는 인류의 정신을 구제할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강설을 시도해 봤다”고 말한다.

무비 스님은 책을 통해 선불교의 핵심을 꿰뚫어 보여준다.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사람들이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 인생의 가치관이 심하게 혼미해진 인류의 정신을 구제하고 가치관을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가 선불교”라며 “미래 인류의 정신적 대안인 선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데 행히 〈직지〉가 있었다”고 말한다.

무비 스님은 〈직지〉는 방편을 조금도 빌리지 않고 불조의 깨달음을 바로 가리킨 선불교의 모범이라고 찬탄한다. 그 이름처럼 〈직지〉야말로 인류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구제할 선불교의 최고의 교과서라고도 말한다.

스님은 책 서문의 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직지(直指)〉와 인연한 모든 분들이 해안이 통투(通透)하여 지혜로운 삶을 누리며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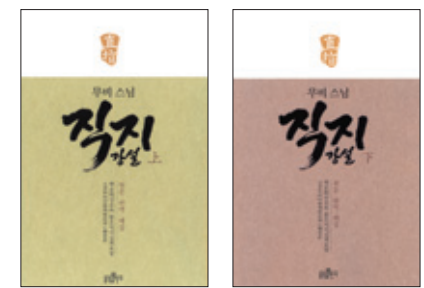
들에게 전법의 원력을 세워 세상이 좀더 평화로워지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이은 대강백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대 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 중인 스님은 인터넷 카페 연합실(cafe.daum.net/yumhwasi)에서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무비 스님은 최근 민중사(대표 윤창화)가 발행한 〈콘사이스관 불교사전〉을 중앙승가대학교 와 전국 강원 등에 대량으로 무주상 범보시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무비 스님은 “적어도 공부하는 강원이나 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은 한 권씩의 불교사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직지 강설 | 무비 스님 | 불광출판사 펴냄 | 상·하 각권 2만3000원



선의 황금시대 순례기

정찬주 작가의 ‘행복한 선 여행’

지난 세기말부터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하고 선(禪)이 조명을 받고 있다.

선은 6세기 초 인도의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해 당송시대를 거치며 5가 7종의 독특한 중국 선종으로 발전한다. 이 당송 시기를 선의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빛나는 별 같은 수백, 수천 명의 고승이 출현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행복한 선 여행〉의 저자 정찬주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라며 “불교는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말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에 선의 황금시대는 더 크게 꽃 피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찬주 작가와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선원의 재가불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순례를 마쳤다. 이들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돌아봤다.

순례 일행은 짙은 비구름 자락을 뚫고 남양형산 적발봉의 남양회양선사묘탑에서 순례를 시작해 남양형산, 밀인사, 석상사, 서운사, 백장사, 황벽사, 보리사, 보통사, 보봉사, 진여사, 무인사 등을 순례했다. 이들이 함께한 순례에는 1000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한 21세기 제자들이 참나를 찾는 행복한 구도의 향연이 펼쳐진다.

행복한 선 여행 정찬주 저, 이음미들하 우스 펴냄 1만5000원



내 안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염불하라

덕산 스님, 체험 통한 염불선 수행의 이론과 실제 밝혀

“염(念)이란 각 사람마다 일으키는 현재의 한 생각이고, 부처(佛)란 사람마다 깨달은 참 성품이다. 지금 한 생각으로 불성을 깨달아 간다면, 이는 곧 근기가 수승한 사람의 염불로서, 부처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본래 부처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수행이다.”(〈대지도론〉)

〈염불선〉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등을 통해 염불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던 정원 해원사 주지 덕산 스님이 염불선 수행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밝히는 책을 출간했다.

스님은 그간 염불선을 역사적, 이론적 근거를 밝힌 현대적인 염불선의 기초를 설명해왔다면, 이번 책에서는 염불선 수행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덕산

스님은 염불과 참선의 장점을 결합한 염불선에 대해 “기존의 정토염불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들다. 또 간화선에서 ‘무(無)’나 ‘이 뭣고?’ 등의 화두들이 의심이 잘 되지 않아 득력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염불정근으로 업을 녹인 후,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쟁기면 훨씬 수월하게 득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책에서 재가자들이 자주 묻는 수행법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명쾌한 답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수행으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발심이 중요하다. 발심은 죽은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며 “간절한 발심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말한다.

덕산 스님은 무엇보다 “염불선 수행자



는 현생과 극락에서의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내가 본래 부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정토 염불이 아닌, 내 안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염불해야 한다. ‘아미타불’ 또는 ‘지장’ ‘관음’을 입을 움직이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되, 우주의 주인인 ‘염불하는 그 놈’에 마음을 두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잠드는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덕산 저, 이음미들하 우스 펴냄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일러스트로 배우는 명상

300여컷 독특한 편집 돋보여

불교 수행방법중 하나인 명상은 수천 년 동안 효과를 입증해 오고 있는 해탈 방법이다.

심리 전문가이자 재가불자인 란메이(藍梅)가 그의 저서 〈불교명상〉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각종 일러스트와 도표를 이용한 〈불교명상〉은 독특한 편집 수법을 사용해 독자가 간단한 명상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활과 자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윤택하고도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자들은 정밀한 300여 컷의 일러스트와 100여개의 도표를 따라 이 책을 읽어가면서 평온하고 행복한 정신적 여



행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명상법은 불교 명상 수련법의 정화 가운데 실천적인 방법만 가려낸 것들이다.

도시에서 유행하는 마음의 수련에 관한 각양각색의 수련법 중에서도 명상 수련법은 특히 일상생활이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내면의 근심이나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 수련자의 의식과 정신을 이완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불교명상란메이 저, 이음미들하 우스 펴냄 2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3~7/1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월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심리연구원
4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5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6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7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8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괴케한스	21세기북스
9	세 관문을 통과하라	한경혜	작가의집
10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성진	미음의숲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집 숲 24곳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인 글이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휴가길 필독서!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정심빌딩 3층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뉘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난으로부터 구제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